

더위먹은 보수작업...신라 불상 화재

안전시설 없이 복원 작업... "문제없다" 대처 안일 소유-관리 분리된 문화재 보호체계 개선 지급

건봉사 능파교 붕괴에 이어 또다시 지방 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정비 보수 작업 중이던 통일신라시대 석조여래좌상(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92호)이 화재로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월 2일 오전 5시경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에 있던 석조여래좌상이 불에 타 하단 부분이 파손된 것을 마을주민 이석달(53)씨가 발견, 당국에 신고했다. 화재는 보수공사 도중 불상하단을 받쳐놓은 플라스틱 재질의 운반용 팔레트에 촛불이 옮겨 붙으면서 발생했다. 불상은 전신이 불에 타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서 오른쪽 발목까지 금이 갔고 머리위에 놓여 있던 지붕들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경주시청 문화예술과는 지난 5월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문화재 보수업체인 (주)한성에 석조여래좌상 주변 정리 및 복원정비 작업을 의뢰했었다.

안계리 석조여래좌상은 석굴암 본존불의 제작 양식을 그대로 이어 뛰어난 조각기법으로 인해 보물급 이상의 유물로 평가받아 왔으며 지난해에는 조계종 문화부가 주변 지역 발굴조사를 실시했었다. 조계종은 발굴과정에서 석불의 좌대 상·중·하단을 복원하고 최근에 문화재 지정을 준비해왔으며 경주시도 이 일대의 복원정비 사업을 벌여왔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복원공사 현장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안전시설

을 하지 않았으며, 화재가 나기 3일전에는 보수업체가 석불을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약 1.5m 가량 옮겨 방치해 놓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 경주시청은 "원래 파손정도가 심한 유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낮았다"고 평가하고 "현재 파손된 석불의 보존처리를 문화재청에 의뢰 중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밝혀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낮은 의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석불의 훼손상태를 처음 발견한 주민들과 경주 문화관련 단체들은 "지자체의 허술한 복원공사 현장 관리감독이 이런 참변을 불러왔다"며 경주시청과 보수업체를 함께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문화부는 "소유권과 관리권이 국가와 지자체로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석조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고는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문화재 보호법 개정



불에 타 훼손된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석조여래좌상. 사진=배지선 기자

만해마을서 세계교수불자대회

17~19일, 각국서 200여명 참석 지구촌 화합 모색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는 8월 17~19일 만해마을에서 미국, 일본, 영국, 태국, 대만, 한국 등의 교수 불자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세계 교수불자대회를 개최, 현대의 가치관 혼란에 대한 불교적 치유법을 모색하고 국제 화합을 도모한다.

이번 대회는 크게 학술발표(17·18일)와 분과토론(19일)으로 치러진다.

대회 첫 날인 17일에는 기초강연으로 커렐 워너(영국 런던대) 교수가 '불교와 평화', 츠요시 나카노(소카대)교수가 '불교단위 정치참여의 의의와 과제', 이준(건국대) 교수가 '불교적 실상과 현대과학의 비교문화적 교감' 등을 발표한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종교명명간의 대화'를 주제로 태국의 인티야즈 유세프(이성선대) 교수가 '이슬람과 불교의 대화'를, 덴마크의 리스하우스(미주리대) 교수가 '불교 종파

간의 대화' 등을 발표한다.

또 '한국불교와 종교문화'를 주제로 김은규 성공회대 교수가 '불교와 기독교, 그 상생의 길'을, 조용현 원광대 교수가 '불교와 사주학'을, 동국대 유훈우 교수가 '신유학과 불교의 대화' 등을 발표한다.

셋째 날인 19일에는 △정치 경제문제와 불교 △현대 과학과 불교 △문화예술과 불교 △사회·교육문제와 불교 △여성문제와 불교를 주제로 분과토론이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오현 스님(백담사 주) 법문, 아침·저녁 예불, 참선, 불교예술 공연 등이 프로그램에 포함돼 외국 교수 불자들이 한국 불교의 신령 및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일 학술발표회를 마친 후에는 아시아교수불자연합이 창립될 예정이다. (02)720-6618

지울스님 단식 40여일 '건강 위협'

무더위 속 사투 불구 정부 무관심 일관 불교계 '천성산 환경평가 재실시' 건의



8월5일 호남·제주지역 조계종 본사 스님들이 청와대 앞 지울스님(맨 오른쪽)을 방문했다.

지울스님의 청와대 앞 단식 시위가 40일을 넘어서면서 스님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는 '도통봉 소송인단 100만인 서명 범불교운동본부'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천성산과 지울스님 살리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초기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6월 30일 시작된 지울스님의 청와대 앞 단식 시위가 8월 8일로 40일째를 넘어서면서,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 중단을 위한 스님의 정진도 정점을 향해 달려가

고 있다. 스님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40일을 넘긴 단식 두 번을 포함한 120여 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단식이 40일을 넘으면 자칫 목숨을 잃는 위험을 상황은 맞을 수 있다. 지울스님은 현재 건강을 섞은 물만을 마시며 무더운 길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스님은 "천성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식을 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책임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결연함을 보였다.

스님의 단식이 한계 상황에 이르면서

천성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단체들의 발걸음도 한층 바빠지고 있다. 불교 환경연대, 중앙신도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인드라마생명공동체 등 불교단체들은 8월 3일 '도통봉 소송인단 100만인 서명 범불교운동본부'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한편, 같은 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방문해 천성산 구간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조계종 호남·제주지역 교구본사인 금산사 백암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관음사 선운사 소속 주지 스님들도 8월 5일 지울스님을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조계종 사찰 주지 스님 전원이 지울스님의 단식 시위에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외에서도 뉴질랜드 유학 중인 이승욱 씨 등이 7월 30일부터 외국인과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을 요청하는 영문 메일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8월 4일 청와대를 관망하겠다고 찾아온 '도통봉의 친구들'의 진언을 강제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지울스님에게 "공사 진행에 관해 이야기가 다 끝났다"는 입장을 비서관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강유신 기자

문광부 추천도서에 불서 선정

<시공불교사전> <원효 철학 에세이>, <한국의 불상조각> 등이 "2004 문화관광부 추천도서"에 선정됐다.

문화관광부는 학술출판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선정하고 있는 "2004 문화관광부 추천도서-학술부문"에 어학, 사회과학, 종교·철학, 역사, 문화일반·문화재 등 9개 분야 250종의 책을 8월 5일 선정 발표했다.

분야별 불교 관련 서적으로는 총류·어학 분야에 <시공불교사전>, 종교·철학 분야에 <중앙종교와 서양사상> 등이 선정됐다. 또한 역사 분야의 <타메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 예술 분야의 <한국의 불상조각> 문화일반·문화재 분야의 <한국의 당간과 당간지주>도 추천도서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www.mct.go.kr

여수령 기자

불서읽기모임 모니터링 모임

독서를 통해 불교를 배우고 생활화하기 위한 불서 읽기 모임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은 10월 정식출판을 앞두고 불자들의 독서 취향과 모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니터 요원은 8월 18일부터 9월 15일 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가량 모임을 갖고 선정 도서를 읽은 소감과 난이도, 모임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모니터링 요원에게는 <선방일기>(여시미문), <무소유>(범우사), <번뇌 업 고통>(민족사) 등 5권의 책을 무료로 지급한다.

8월 13일 까지 전 화나 이메일(minjoksa@chollian.net)로 신청 가능하고 발표는 16일에 한다. (02)722-7679

여수령 기자

비키니 수영복에 불상 넣은 업체 사과

여성 비키니 수영복에 부처님 모습을 그려 해를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 속옷업체가 스리랑카에 사과했다.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측은 "지난 4월부터 부처님 모습을 비키니 수영복에 새겨 판매해오던 미국 속옷업체인 빅토리아즈 시크릿(Victoria's Secret)이 최근 스리랑카에서 수영복을 수거하고 불자들에게 사과했다"고 8월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스리랑카 대법원이 상업적

목적으로 종교적 상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후 나온 결과다. 따라 나가야 무살라 다르마 스님은 부처님의 이미지가 새겨진 비키니 등의 유통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에 냈었다.

이와 관련 주한 스리랑카 비제아시아리 대사는 7월 13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 부처님 상호를 상업화하는 문제에 대해 범불교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남동우 기자

단기출가 인기 이렇게 높을 줄이야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단기출가 학교(본지 483호 1면 기사참조) 인교 신청 쇄도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월정사측은 "8월 1일부터 6일까지 접수한 결과 30명 정원에 80명이 인교 신청을 하는 등 단기출가학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신청 마감일 9월 4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자를 살펴보면 남성 46명, 여성 34명으로 남성들이 보다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는 10대에서 70대까지 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2~3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월정사측은 "휴식계를 내 고서라도 인교하고 싶다는 직장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40세 이하까지만 인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과 관련 "나이 때문에 정식 출가도 못하는데 단기출가라도 해보자는" 희망의 성향을 나타내며 "신청자 중 일부는 단기간 내내 단식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상보다 호응이 높자 월정사측은 단기출가학교를 '상설화' 하고 기간도 한달에서 안거 개념을 기준으로 두세 달로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033)332-6664-5

남동우 기자

http://www.uu.ac.kr

좋은 인을 지읍시다 희망을 키워가는 보람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10년 역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환동해권 중심대학으로 전진하려는 꿈과 희망을 실천하여 가기 위한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기탁해주실 기금은 학교시설물 건립, 장학금 지급, 학부발전기금, 여성축구단 후원 등의 목적으로 쓰입니다. '교육을 통한 사회발전'을 염원하는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 지역의 문화와 사회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덕대학교에는 희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발전을 향한 열정과 노력이 있습니다. '위덕사랑 나누기'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현금기부

- 무통장 입금**
무통장입금시 입금내역 및 인적사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대우은행 : 204-05-001750-2(예금주 : 위덕대학교 총장)
- CMS(자동이체)**
금융결제원과의 CMS(자금관리서비스) 출금이체 이용계약에 의하여, 기탁자가 거래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원하시는 기간동안 자동이체로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납부**
위덕대학교 기획홍보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 위덕(본관) 2층 203호

비현금기부

- 유가증권 및 부동산**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유가증권(주식·채권) 및 부동산(건물·토지)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유형고정자산**
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한 도서자료, 각종 실험기자재, 비품 등을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위덕사랑 나누기' 기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홍보팀으로 연락주시십시오.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소 : 780-713,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625번지 위덕관 203호 기획홍보팀
 ■ 전화 : 054-760-1053 ■ 팩스 : 054-760-1059 ■ E-mail : ghlee@uu.ac.kr